

■ 천국보다 낫선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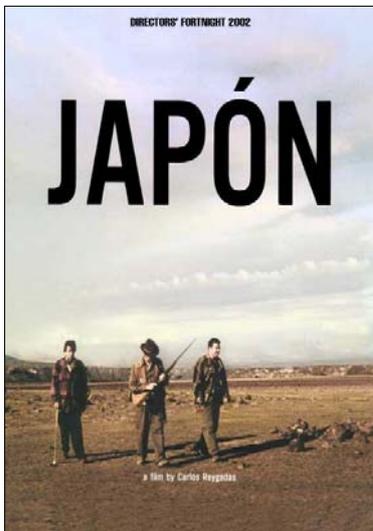
카를로스 레이가다스의 영화 세계

임 호 준

상상력의 고갈로 신음하고 있는 할리웃에 최근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Alejandro González Iñárritu), 기예르모 델 토로(Guillermo del Toro) 등 새로운 재능을 공급한 바 있던 멕시코 영화계에 또 한 명의 걸물이 등장했다. 그는 1971년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난 카를로스 레이가다스(Carlos Reygadas) 감독이다. <일본 Japón>(2002), <천국의 전투 Batalla en el cielo>(2005), <침묵의 빛 Luz silenciosa>(2007) 등 세 편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미 멕시코 영화계는 물론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감독 중 한명으로 자리 잡았다. 데뷔작 <일본>으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모두 칸 영화제의 본선 경쟁부문에 올렸다. 특히 세 번째 작품 <침묵의 빛>은 멕시코 최고 권위의 아리엘 상을 휩쓸었으며 칸 영화제 배심원상, 아바나 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그의 영화는 그 동안 멕시코 영화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서사,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좀 진부하긴 해도 상업영화/예술영화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보자면 그의 영화는 전형적인 예술영화에 속한다. 느린 리듬, 단순한 서사, 길고 긴 롱 테이크, 와이드 스크린 -때로는 2.35:1 을 넘는- 에 대한 선호는 유럽 예술영화의 문법을 닮아있다. 그러나

예술영화로 분류될 수 있을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대부분이 고도의 정치성을 함축하고 있음에 비해 -이런 점에서 그들은 유럽 예술영화와는 다른 '제3의 영화'를 표방한다- 레이가다스의 영화는 현실정치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 아마도 벨기에에 거주했던 경험이 그의 작품에 다소 유럽 예술영화의 흔적을 남긴 듯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화가 지루한 문법과 고답적인 예술미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영화는 좀처럼 편안한 감상을 허락하지 않는 괴이하고 불편한 신들과 예상을 비껴가는 서사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이라는 특이한 제목에 이끌려 DVD로 작품을 보았는데 표면적 서사는 제목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감독은 시적인 효과를 위해 서사와 관련 없는 제목을 붙였다고 했다. 영화는 멕시코 티의 교통체증을 뒤로하고 자살을 위해 북쪽의 외딴 마을을 찾는 50대 화가의 이야기였다. 심신이 고갈된 화가는 멕시코 북부 타라우마라(Tarahumara) 주의 산골마을을 찾는다. 너무나 척박하고 낙후되어 있는 이 마을은 노새가 산 중턱까지 물을 날라야 하고 이런 궁핍함은 부뉴엘의 다큐멘터리 <빵 없는 대지>의 우르데스 마을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에서 화가는 산 중턱의 외딴 집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80세 노파의 집에 방을 구한다. 남편이 죽은 후 쓸쓸히 살아가고 있던 노파는 기이한 방문객을 정성껏 대한다. 화가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비좁은 침대에 누워 자위를 한다. 어느 날 그는 노파에게 동침을 할 수 있겠냐며 어렵게 말을 꺼낸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의아해 하던 노파는 “그러니까

나에게 섹스하길 원한다는 말이군요.” 하고 확인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에 동의한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80세 노파의 벗은 몸을 이리저리 탐하던 화가는 스스로의 구차한 욕정이 부끄러웠음인지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영화의 결말은, 화가의 자살 대신 노파의 집이 탐욕스런 조카에 의해 철거되고 노파와 인부들이 모두 기차길에 널부러진 채로 끝이 난다.

가끔은 화면이 정지된 것이 아닐까 느낄 정도로 느린 전개와 절제된 대사는 관객을 지루하게 할 만하지만 가끔씩 등장하는 생경한 장면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의를 환기 시킨다. 아무런 배려 없이 극도의 생생함으로 재현되는 말의 교미 장면, 화가의 자위 신, 80세 노파의 누드는 이런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든다. 느릿느릿 생경한 풍경을 감상하던 관객들은 갑작스레 등장하는 낫선 에로티시즘의 장면에 당황하고 허둥대게 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낫설고 거친 성애 장면을 통해 관객에게 충격을 주는 전략은 레이카다스의 두 번째 작품 <천국의 전투 Batalla en el cielo>에서 극에 달한다. 첫 장면에서 카메라는 평범하게 생긴 중년 남자의 얼굴을 한참 비춘 후 그의 볼품없는 몸을 타고 아주 느리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처진 가슴과 불룩한 배를 지나자 젊은 여성의 뒷머리가 보인다. 남자는 성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포르노 영화에 나올 법한 생경한 섹스신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50대 운전수 마르코스와 주인 집 딸 사이의 비밀 관계를 다룬다. 장군의 딸 아나는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마르코스는 그녀를 업소에 데려다주고 그녀의 서비스를 받으며 비밀을 지켜주고 있다. 마르코스는 부인과 함께 돈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하는데, 아이가 죽자 극심한 죄책감과 내적 갈등에 번민한다. 아나는 그를 달래기 위해 그와 동침하고 자수할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관객의 예상과 달리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아파트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다.

파격적인 스토리 설정과 엽기적인 이미지는 김기덕의 영화를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거칠고 투박한 톤의 김기덕 영화에 비해 그의 영화는 무신경해 보이는 느린 리듬을 고수한다. 김기덕의 영화가 사회 도발적인 저항감을 함축하고 있음에 비해 레이가다스의 영화는 계급, 연령, 인종의 차이를 극명하게 재현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전혀 이슈화하지 않고 비켜간다. 오히려 그는 부유한 집안 소녀의 일탈심리 그리고 50대 중년 남성의 심리적 동요와 원초적 욕망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멕시코시티의 거미줄 같이 뻗은 대로를 익스트림 롱샷으로 보여주던 카메라는 칙칙한 아파트 벽을 지나 아나와 마르코스가 누워있는 방의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성기를 클로즈업 한다. 원주민 혈통을 가진 비대한 몸집의 아내와 또 다른 볼품없는 몸매의 남편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갖는 부부의 잠자리 장면 역시 그로테스크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나치게 대담하고 불편한 장면의 그래픽한 재현 때문인지 <천국의 전투>가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자 레이가다스 감독은 충격이 순화된 세 번째 영화 <침묵의 빛>을 내놓는다. 그러나 생생한 성애 장면이 없다 뿐이지, 이 작품에도 관객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낯설고 강렬한 이미지는 여전히 근간을 이루고 있다. 나는 이 영화를 런던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보았는



데, 처음 몇 분간은 상영관을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 화면에 등장하는 배우는 모두 게르만 인종이고, 언어 역시 그쪽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영화가 맞다고 확신하기 시작한 건 등장인물들이 간식으로 타코를 먹는 장면에서 이르러서였다.

영화는 멕시코에 북쪽에 이민 와 살고 있는 매노나이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배우들 역시 이 공동체의 아마추어들을 기용했다고 한다. 나는 멕시코의 매노나이트 공동체의 존재를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 신앙심이 깊은 매노나이트 교도들은 무엇보다 평화를 신봉한다고 한다. 주인공인 가장 요한은 성실한 농부로서 6명의 자식을 거느린 가장이다. 그는 아내인 에스터를 사랑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지만 다른 여자 마리안을 사랑하게 되면서 고통과 번민에 휩싸인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가자 혼자 남은 식탁에서 그는 아프게 흐느낀다. 정직한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내에서 털어놓은 후에도, 사랑의 힘에 이끌려 마리안과의 만남을 지속한다. 두 여인 역시 고통과 사랑 속에서 번민한다. 영화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

람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두 개의 사랑 사이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일부일처제의 모순을 드러낸다.

그의 정부인 마리안 역시 팜므 파탈이 아니다. 그녀는 “평화는 사랑보다 강하다”며 요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한다. 물론 그녀 역시 사랑의 힘을 이기지 못하면서 말이다. 요한은 목사인 아버지에게 찾아가 고민을 고백하는데, 아버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음을 들려주며 두 여자 중에 한 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한다. 결국, 고통 받던 요한의 부인 에스터는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심장마비로 죽는다. 장례식장에서 요한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때 마리안이 나타나 매장하기 전에 에스터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며 그녀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 혼자 들어간다. 에스터의 처지를 진정 마음 아파한 마리안은 시신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그러자 목을 덮었던 레이스가 가볍게 떨리며 죽었다고 여겨졌던 에스터가 눈을 뜬다. 죽음이 뭔지 몰라 그저 엄마의 시신 옆에 있던 아이들은 엄마가 눈을 떴다며 아빠에게 달려간다.

중년 남성의 외도와 그에 따른 고민과 갈등이라는 서사는 진부하다. 그러나 보통의 ‘불륜서사’가 비밀과 누설 사이의 긴장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고백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외도의 서사는 낯설었다. 컷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느린 카메라 워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원과 종교의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유럽 예술영화의 거장 칼 드레이어(Carl Dreyer)의 작품이 떠올랐다. 확실히 <잔다르크의 열정> 만큼이나 이 영화 역시 137분 동안의 긴 러닝타임 동안 관객에게 묘한 감정적 울림을 전해 주었다. 아마추어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와 대사는 진실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다. 영화관에 앉아 있던 20~30명의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

라갈 때까지 한동안 극장을 떠나지 못했다.

비록 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레이카다스는 독자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하여 작가 감독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아르투로 립스테인(Arturo Ripstein) 감독 이후 멕시코 영화사에서 레이카다스 만큼 개성 있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드물었다. 그의 영화 속 몇몇 이미지들은 너무 강렬해서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듯하다. 덕분에 그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적어도 비평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유사한 작품 성향으로 해외 영화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김기덕 감독의 경우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기덕의 경우에도 그렇듯, 산업적으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라틴아메리카 영화계에서 레이카다스와 같은 작가 감독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지켜가며 건재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